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그러나 조선 사람은 어때요?”

㉠“요보* 말썬요? 젊은 놈들은 그래도 제법들이지마는, 촌에 들어가면 대만(臺灣)의 생번*보다는 낫다면 나올까. 언제 가서 보슈…… 하하하.”

‘대만의 생번’이란 말에, 그 욕탕 속에 들어앉았던 사람들은 나만 빼놓고는 모두 껄껄 웃었다. 그러나 나는 기가 막혀 입술을 악물고 치어다보았으나 더운 김이 서리어서 꺾자들에게는 분명히 보이지 않은 모양이었다. 욕객은 차차 꾸역꾸역 쏟아져 들어온다.

사실 말이지. 나는 그 소위 우국지사는 아니나 자기가 망국 백성이라는 것은 어느 때나 잊지 않고 있기는 하다. 학교나 하숙에서 지내는 데는 일본 사람과 오히려 서로 통사정을 하느니만큼 좀 낫다. 그러나 그 외의 경우의 고통은 참을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망국 백성이 된 지 ㉡근 십 년 동안 언제는 무관심하도록 주위가 관대하게 내버려 두었었다. 도리어 소학교 시대에는 일본 교사와 충돌을 하여 퇴학을 하고 조선 역사를 가르치는 사립 학교로 전학을 한다는 등, 솔직한 어린 마음에 애국심이 비교적 열렬하였지마는, 차차 지각이 나자마자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는 간혹 심사 틀리는 일을 당하거나 일 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길에 하관*에서나 부산·경성에서 조사를 당하고, 성이 가시게 할 때에는 귀찮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지마는 그때뿐이요, 그리 적개심이나 반항심을 일으킬 기회가 적었었다. 적개심이나 반항심이란 것은 압박과 학대에 정비례하는 것이나, 기실 그것은 민족적으로 활로를 얻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러나 칠 년이나 가까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경찰관 이외에는 나에게 그다지 민족관념을 굳게 의식케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래 정치 문제에 흥미가 없는 나는 그런 문제로 머리를 썩여 본 일이 거의 없었다 하여도 가할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었다. 그러나 요새로 와서 나의 신경은 점점 흥분하여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면 적개심이라든지 반항심이라는 것은 보통 경우에 자동적·이지적이라는 것보다는 피동적·감정적으로 유발되는 것인 듯하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은 지나치는 말 한마디나 그 태도로 말미암아 조선 사람의 억제할 수 없는 반감을 끌어오르게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에 조선 사람으로 하여금 민족적 타락에서 스스로를 구하여야 하겠다는 자각을 주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될 뿐이다.

지금도 욕탕 속에서 듣는 말마다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이 없지만, 그것은 될 수 있으면 많은 조선 사람이 듣고, 오랜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자아낼 뿐이다.

(중략)

다시 들려 들어오며 보니 찾간에서 무슨 대수색을 하는지 승객들은 아직도 아니 들여보내고 결박을 지은 여자는 엷은 아이가 깨어서 보채니까 일어서서 서성거린다.

-젓이나 먹이라고 좀 풀어줄 알이지.

하는 생각을 하면 ㉢곁에 시퍼렇게 일어서 앉은 순사가 불쌍하다가도 밍살맞다. 목책 안으로 들어오며 건너다 보니까 차장실 속에 있던 두 청년과 헌병도 여전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까닭 없이 처량한 생각이 가슴에 복받쳐 오르면서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공기에 몸이 떨린다.

젊은 사람들의 얼굴까지 시든 배춧잎 같고 주눅이 들어서 멀거

니 앉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빌붙는 듯한 친한 웃음이나 ‘헤에’ 하고 싱겁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면 가엾기도 하도, 분이 치밀어올라 와서 소리라도 버럭 질렀으면 시원할 것 같다.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뉘져버려라!

차간 안으로 들어오며 나는 혼자 속으로 외쳤다.

-무덤이다! 구더기가 끓는 무덤이다!

나는 모자를 벗어서 앉았던 자리 위에 던지고 난로 앞으로 가서 몸을 녹이며 섰었다. 난로는 꽤 달았다. ㉣뱀의 혀 같은 빨간 불길이 난로 문틈으로 날름날름 내어다보인다. 차간 안의 공기는 담배연기와 석탄재의 먼지로 흐릿하면서도 쌀쌀하다. 우중충한 남폿불은 웅크리고 자는 사람들의 머리 위를 지키는 것 같으나 묵직하고도 고요한 압력으로 찌긋이 내리누르는 것 같다. 나는 한번 휘 둘러다 보며,

㉤‘공동묘지다! 공동묘지 속에서 살면서 죽어서 공동묘지에 갈까 봐 애가 말라 하는 가혹한 백성들이다!’

하고 혼자 코웃음을 쳤다.

-염상섭, 「만세전」-

*요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이 조선인을 비하하여 부르던 말.

*생번: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대만의 토족.

*하관: 일본의 항구 도시인 시모노세키를 나타냄.

(나)

틈펜* 3, 4인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부터 등장. 모두 뱀국이 피죄죄한 조선옷을 입었다. 주린 빛이 완연하다. 전면 벤치에 죽 걸터앉아 묵묵히 말이 없다.)

어떤 사람 A와 B (나란히 서서 무대의 왼쪽 전면으로 등장. 이야기를 하면서 오다가 중앙쯤에서 관객석을 향하여 머물러 선다. B는 담배를 피워 물었다. 둘이 다 신수가 흰치르르하다.)

A 글썽 그렇잖소? 저이들은 나더러 변질을 했다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그야말로 깊이 생각하면 오십보로 소백보지. 저이가 더 나을 게 무어냐 말이야.

피어로 (두 사람을 비로소 보고 얼굴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온다.)

B (고개만 끄덕거린다.)

A 차라리 우리처럼 태도나 표명했으면 가령 죄라고 하더라도 덜하지.

B 그게 도시예* 그래요. 민중이니 민족이니를 위해서 자기네들은 일을 한답시고 하지만 그것이 이익을 끼치기는 결국 돈 있는 사람과 그 밑에서 유지니 지사니 해 가지고 일한다는 그 사람들에게뿐이지 정말 일반 민중이야 어데 그 혜택을 입소?

A 그렇구말구! 좌우간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외인 편으로 벗어부치고 나서지 않으면 솔직하게 선명하게 바른편에 가담해 가지고 자본주의 그 세대에 알맞은 행세를 하는 게 제일이야.

B 그렇구말구! 중국의 장개석이가 중국을 위해서 일한다지만 그것이 중국 전 민족의 일이 아니라 토착 부르주아를 위한 일이니까……. 자 어서 갑시다. 시간이 거진 다 되었겠소.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버린다.)

두 사람 (무대의 오른쪽 전면으로 유유히 퇴장)

피어로 (그 뒤를 흘기며 이를 간다.)

틈펜 일동 (그동안에 B가 버린 담배 토막을 서로 집으려고 야단이 일어난다.)

피에로 (이 꼴을 보고 더욱 성이 난다.)

룸펜 일동 (무대의 오른쪽 후면으로 퇴장)

-채만식, 「영웅 모집」-

*룸펜: 부랑자 또는 실업자를 나타냄. 여기서는 좌절된 지식인을 나타냄.

*도시에: 아무래도, 도대체.

22.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들은 주변 인물이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하여 과거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있다.
- ③ 인물이 가진 생각과 정서가 인물 주변의 관찰자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인물의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고, 이를 통하여 인물을 풍자하고 있다.
- ⑤ 인물이 다른 인물과의 갈등을 겪은 이후 인물이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나고 있다.

23.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목욕탕 안에서 조선인을 비하하는 일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저항하여 이로 인해 일본인들이 당황하게 된다.
- ② '나'는 적개심과 반항심이 상대적으로 능동적이고 침착한 심리 상태에서 더 효과적으로 발현되는 것임을 깨닫는다.
- ③ '나'는 소학교 시절 일본인 교사와 충돌한 끝에 퇴학 당한 친구를 본 이후, 독립운동에 대해 회의감을 지니게 된다.
- ④ '나'가 일본에 있던 7년 동안 경찰관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일본인들의 대우는 '나'에게 민족 의식을 일깨우게 한다.
- ⑤ '나'는 열렬한 애국자에 속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일제 강점기 이후로 '나'가 망국의 백성임을 잊은 적이 없음이 드러난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나)의 '피에로'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희곡 「영웅 모집」에서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 '피에로'라는 관찰자의 시선을 가진 인물이 다른 등장인물을 관찰한 후, 인물에 대해 평가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이를 통하여 당대 현실에 대한 작가의 의식을 대변하고, '피에로'의 반응은 관객에게 등장 인물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 ①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통하여 작가 의식을 대변한다.
- ② 극 중 상황에 대한 반응을 통해, 관객에게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
- ③ 인물들의 대화에 개입하여, 주제 의식을 심화하고자 한다.
- ④ 다른 인물들과의 상호 작용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을 통해, '피에로'라는 인물을 투입시킨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⑤ 관찰자의 시선을 가진 인물로서, 여러 인물들의 인간 군상을 관찰하여 이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일본인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당시 일본인이 가진 조선인에 대한 모멸과 비하가 드러난다.
- ② ㉡: 일제 강점기 이후의 열악한 현실에서도 당시 조선인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더 관대해질 수 있도록 지식인으로서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나'의 의도가 드러난다.
- ③ ㉢: '나'가 순사에 대하여 추위의 언 것에 대한 연민과 아이를 업은 여자를 결박하고 수색하는 비인간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의 감정의 동시에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 난로 안의 빨간 불길의 뱀의 혀같이 보인다는 데서, 당시 일제 강점기의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⑤ ㉤: 이미 공동묘지와 같은 처참한 식민지 현실에 살고 있는 조선 민중이 후일에 공동묘지에 묻힐 것을 걱정하는 데서 조선인들에 대한 연민과 이에 대한 '나'의 비판이 드러난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3·1 운동 이전을 다룬 「만세전」에서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직면하였던 민족적 현실에 대해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 못하는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나고, 반면, 1930년대의 일제 강점기를 다룬 「영웅 모집」에서는 무능한 지식인과 변절한 지식인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행적을 합리화하려는 변절한 지식인의 모습과 몰락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난다. 이 두 작품은 상이한 성격을 지닌 지식인을 등장시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데, 「만세전」에서는 지식인인 '나'의 내면 의식이 변화하는 모습을 통하여 독립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영웅 모집」에서는 두 지식인의 모습을 비판하여 민족 의식의 높은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나'는 '민족 관념'에 대한 인식을 일제 강점기 이후에 생각해본 적 없고, 이에 대한 고뇌를 하지 않을 만큼 '정신이 마비되었'다는 데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 드러내는군.
- ② (나)의 '저이들'과 자신이 '오십보로 소백보'라는 A의 인식을 통해 당대 변절한 지식인의 자신의 변절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의도와 지식인이 민족 의식에 대해 망각했음을 드러내는군.
- ③ (가)의 '나'가 어릴 적에 '애국심'이 '열렬하였'으나 이후 '나'가 독립에 대해 소극적인 데서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을, (나)의 '룸펜 일동'을 통해 무능한 지식인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이게 산다는 꼴인가? 모두 똥져버려라!'는 당시 의식 없이 비굴하게 살아가는 조선인과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 의식과 지식인의 인식 변화를, (나)의 '장개석'은 자신들이 행한 변절에 대해 합리화하기 위한 사례임을 드러내는군.
- ⑤ (가)의 '몽유병'에서 '깨어날 기회'를 얻길 바라는 것은 민중이 독립에 대한 열망을 갖기를 바라는 지식인의 변화된 인식을, (나)의 '민중'과 '민족'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유지'나 '지사'에게만 이익을 끼친다는 B의 인식에서 위선적인 인물에 대해 지적하려는 지식인의 의도를 드러내는군.